

송지효 9억 출연료 미지급 사태 쏘아올린 '우주룩스' 임금 체불 비하인드

스포츠서울

조은별 기자



전 소속사 우주룩스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해
소송 중인 배우 송지효(출처=넥서스파마)

“기자님, 우리 회사 월급이 밀리고 있어요.”

변덕스러운 날씨만큼 몸도, 멘탈도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던 2023년 4월의 어느 날이었다. 평소 친분이 있던 한 취재원의 전화를 받았다. 연예인 매니지먼트와 뉴미디어 사업을 겸하는 신생스타트업 기업 ‘우주룩스’에 다니는 그와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던 중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그는 “우리 회사 얘기, 혹시 기삿거리 되지 않나요?”라며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사정인 즉 매월 10일 입금되어야 할 임금이 2달째 밀리고 있다고 한다. 2월10일에 지급되어야 할 1월 월급을 2월 월급과 함께 3월1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3월10일에는 또다시 회사 사정으로 임금이 밀렸다는 전언이다. 임금이 밀리니 기타 수당은 말할 것도 없었다. 3~4월은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곤 하지만 이 역시 받지 못했다. 설상가상 4대 보험까지 미납됐다.

소속 연예인들도 사정도 마찬가지였



소속사와 정산금 미지급 소송 중인 배우 송지효(출처=SBS '런닝맨' 화면캡처)

다. 송지효, 지석진, 이현우 등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광고 출연료 등이 줄줄이 미지급되고 있다고 했다. 연예인 매니저들의 경우 차량 유류비, 현장 식대 등 진행비용을 석 달째 정산받지 못했다. 요즘 연예기획사들은 절세를 위해서라도 회사 법인카드로 진행비용을 처리하곤 하는데 이 회사는 매니저들이 개인 카드로 진행비용을 쓴 뒤 추후 정산 받는 남다른(?) 구조였다. 관계자는 “현장 매니저들의 경우 군대를 갓 전역한 20대들이 대다수다.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는 직원이 대다수다. 회사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이 ‘네 카드로 진행비용을 쓴 뒤 추후 회사에서 정산 받으면 나중에 연말정산 때 환급받고 좋지 않

냐’고 설득했는데 정산을 받지 못하니 직원들 앞에서 면이 안 선다”고 한숨을 쉬었다.

당시 나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 총 4명이던 부서 기자 2명이 퇴사한 뒤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단 2명에서 매일 지면을 마감하고 온라인 기사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매일 현장을 뛰며 온라인 기사를 쓰고, 퇴근 뒤에는 커피숍이 문을 닫는 밤 10시까지 지면용 기사를 미리 준비하는 일상이 반복됐다. 고강도 노동에 몸이 지치니 멘탈도 무너져갔다. 한마디로 누군가를 위해 대신 싸우기 힘든 상황이었다.



출처=SBS '런닝맨' 화면캡처

연예기획사의 임금 체불 기사는 여느 연예기사보다 취재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해야 하고 사측의 해명도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취재도 들어가야 한다. 그렇다고 연예인 기사만큼 조회 수가 나오지도 않는다. 시쳇말로 ‘가성비’가 좋지 못한 취재다.

하지만 월급을 못 받았다, 4대 보험도 미납됐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구경조차 못했다는 그들의 호소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개인적으로 사회 초년병 시절 임금이 체불된 아픔이 있었기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 2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받으

려고 밤잠 못 자가며, 세상에 존재하는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일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당한 게 커서 누군가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쌈닭’ 기질이 발동하곤 했다.

적극적으로 취재 응했던 직원들 VS 반론권 보장했지만 취재 응하지 않던 사측

직원들부터 취재하기 시작했다. 접근성이 좋은 연예인 매니저들, 그리고 이들이 소개해 준 직원들 위주로 취재에 들어갔다. 대체로 일반인의 경우 기자가 신분을 밝히고 취재를 요청하면 행여 자신에

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꺼리곤 하는데 이 회사는 반대였다.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내 번호가 퍼졌는지 자신을 우주소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문자메시지와 메일이 이어졌다.

취재에 응한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분개한 부분은 회사의 태도였다. 직원들은 뉴미디어 스타트업이라는 업무특성상, 유동성 확보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임금이 체불될 수 밖에 없었던 회사의 상황을 직원들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는 사측의 태도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직원들은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밀린다면 최소한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제 사측의 입장을 받아야 할 차례다.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이 회사 대표에게 6번 이상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 “당신의 반론권을 보장할테니 답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4회 이상 보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기사화 직전인 4월5일 오전, “오늘 기사화하겠다”고 마지막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갑자기 취재원에게 전화가 왔다. “기자님, 나 월급이 들어왔어요.” 5일 오전 11시48분의 일이었다.

꿈수였다. 스포츠지, 온라인 연예매

체와 접근성이 좋은 관계자들 위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직원들에게 확인 결과 “일부 직원들만 임금을 받았다”는 답을 전해 들었다. 사측의 꼼수임을 확인한 뒤 오후 1시에 ‘[단독]송지효·지석진 소속사 우주소, 임금체불에 출연료 미정산까지...직원 퇴사 러시’라는 제목의 최초 기사를 온라인에 송고했다.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다. 얼마 전 가수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에 음원 정산을 미지급받아 소송에 들어간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파장은 더욱 컸다. 그 와중에 우주소의 헐박과 회유도 이어졌다. 사측의 이사라는 분은 “내가 다른 매체의 국장님들은 다 아는데 기자님은 본 적이 없네요”라며 “사업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타사에 반박자료를 내겠다”면서 “언제 만나 사정을 얘기하겠다”며 회유에 들어갔다.

그날 확인한 타사 기사는 참담했다. “절대 임금체불 없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한 매체의 기자는 “연예인 출연료가 미지급 된 것도 아닌데 유명 연예인 이름을 내걸어 조회 수 장사를 했다”는 취지로 내 기사를 나무랐다. 쓴 웃음만 나왔다. 과연 그 기자는 4대보험이 미납됐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 받는 이의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을까.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소속 연예인들의 정산금을 미지급한 우주소 엔터테인먼트 사옥(출처=홈페이지 캡처)

출연료 지급받지 못한 송지효의 전속계약 해지...그 이후

최초기사, 그리고 사측의 반론보도 이후 직원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너도 나도 임금을 받지 못했고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었다. 제보를 토대로 ‘[단독]직원 임금 지불? 미정산 없었다? 우주소 사태 팩트체크 진실 or 거짓’이라는 기사를 작성했다.

직원들은 매일같이 제보 문자, 메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하곤 했지만 문제는 대중의 관심이었다. 사측을 각성시키기 위해서는 분노한 대중의 지탄이 필요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연예인이 나서야 했다. 최초 제보자였던 취재원(그는 여전히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과 이 부분에 대해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누던 중 “송지효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장 취재에 들어갔다.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본 결과 송지효가 사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확인을 위해 송지효 담당 매니저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당황하면서도 “사실 먼저 문의를 준 매체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와 전화를 끊고 우주소 대표와 최종 확인과정을 거치는 동안 타사에서 ‘송지효, 우주소 측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라는 한줄짜리 기사가 나왔다. 하필 그 매체는 연예인의 이름을 내걸고 출연료 미지급 및 직원 임금 체불 기사를 썼다고 나를

나무랐던 매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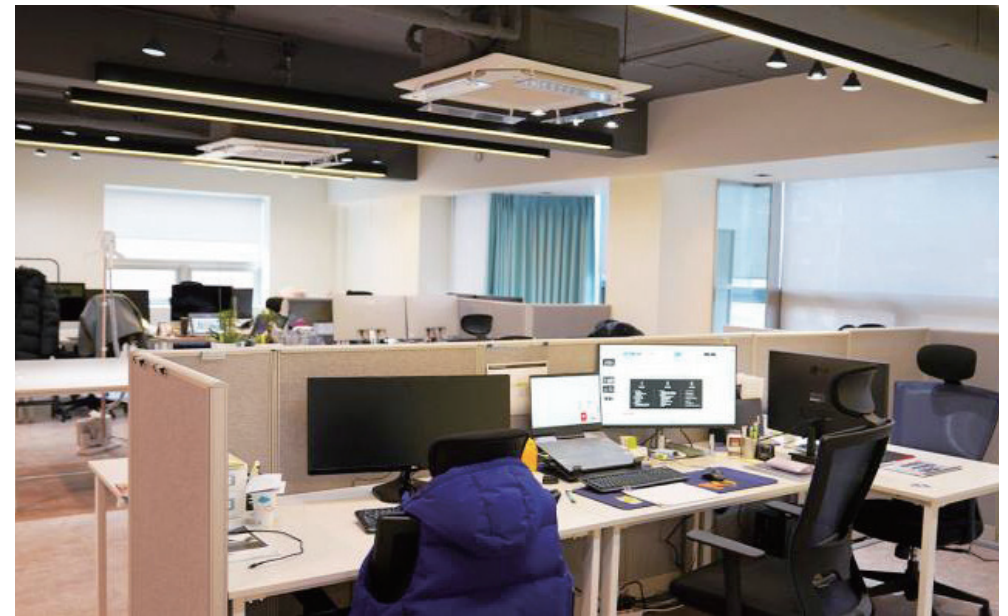
그러나 한줄짜리 기사보다 다각도로 취재한 기사가 더 파급력이 있으리라 판단했다. 어이없게도 우주소 대표는 마지막까지 “계약 해지가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24일 [단독] 송지호 우주소와 결별 비하인드, 직원 및 외주업체 임금체불이 직격탄’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다음 날에는 ‘송지호가 여배우라 소속사 삭제? 임금체불이 실수? 단 3시간만에 뒤집힌 우주소의 거짓케변’이라는 칼럼으로 사측의 얕은 수를 꼬집었다.

SBS ‘런닝맨’ 등을 통해 한류스타로 사랑받던 송지호가 소속사로부터 출연료를 정산받지 못해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는 기사는 연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그때까지 소속사의 해명성 반박 보도자료만 받아쓰던 타사들도 적극적으로 취재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타사의 관심은 연예인에게 집중돼 있었다. 직원들은 최초기사가 보도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금이 체불돼 고통받고 있었다. 타사 기자에게 먼저 귀띔한 송지호의 개인매니저조차 나중에 전화와 “사실 저도 두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이실직고했다.

우주소 사태는 현재진행형... 언젠가 내 일이 될수도

여러 연예매체들이 앞 다퉈 우주소 사태를 보도했다. 회사 대표가 물러났다는 보도, 이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정체를 명의 외국인 인터뷰(이 외국인도 여전히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 송지호의 출연료 미지급 금액이 9억원에 달했다는 등 다양한 기사가 쏟아졌다. 내게는 차마 기사화하지 못한 대표의 사생활, 그리고 우주소가 운영 중인 헬스장이 문을 닫았지만 선결제한 회원권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스포츠지라는 매체 성격과 맞지 않다는 판단 하에 기사화하지 않았는데 추후 타사에서 기사화됐다.

우주소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직원들은 6월12일 고용노동부에 단체로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했다. 송지호는 회사를 박차고 나왔지만 회사와 이런저런 사업으로 묶여있는 소속 연예인들은 출연료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우주소’ 소속으로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회사 소속 한 가수가 대표와 면담을 했다는 제보를 전해들은 뒤 전화인터뷰를 요청하자 해당 연예인은 “나는 그날 회사 근처도 않고 자택에만 머물렀다”고 거짓으로 답하기도 했다. 그는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소속 연예인들의 정산금을 미지급한 우주소 엔터테인먼트 사옥(출처=홈페이지 캡처)

2004년, 기자의 꿈을 안고 입사했던 웨딩잡지가 도산한 적이 있다. 비록 2달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2005년 다시 잡지사에 입사해 일하기 시작했고 2007년부터는 연예부 기자로 커리어를 이어갔다. 18년의 기자생활 중 연예부 재직기간만 16년에 접어들었지만 우주소 사태는 2009년 4월 상장폐지된 팬텀엔터테인먼트(이하 팬텀엔터) 이후 가장 악질적인 사건 취재로 기억에 남을 듯 싶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문자로 계속 제보를 이어갔던 이 회사 젊은 직원의 메시지가 유독 기억에 남는다. 그

는 “저희 팀 20명 정도가 사직서를 작성했다”며 “팀을 대표해서 성심껏 취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다. 덕분에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꼭 이겨내겠다”고 했다. 그간의 고단함이 이 한마디로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기레기’라고 손가락질당하고 조롱받는 연예부 기자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었던 취재였다. 🍷

스포츠서울 조은별 기자